

- 주요 뉴스: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위해 금리인상 필요
 - ECB 은행감독위원장, 감독 당국은 은행 혼란 이후 CDS 시장 주시
 - 중국 총리, 외국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경제 참여 요청
 - 일본은행 총재,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시간 소요,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투자자 관심이 금리 움직임으로 이동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0.2%], 달러화 약세[-0.4%], 금리 상승[+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과 지역은행 규제 강화 가능성 등이 반영
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낙폭 확대 등으로 0.1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은행권 우려 완화 등이 원인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5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 등이 배경
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6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94.6원, -4.2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3/28일	3/27일	전일대비			3/28일	3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71.3	3,977.5	-0.16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7%	3.53%	4bp
	유럽	444.45	444.72	-0.06%		독일	2.29%	2.23%	6bp
	중국	3,245.4	3,251.4	-0.19%		영국	3.46%	3.37%	9bp
	일본	27,518	27,477	0.15%		CDS 5y	한국	44bp	44bp
	한국	2,434.9	2,409.2	1.07%	위험 지표	중국	82bp	85bp	-3bp
	달러지수	102.45	102.86	-0.39%		EMBI+	-	415	-
환율	유로화	1.0845	1.0798	0.44%		VIX	19.97	20.60	-3.06%
	엔화	130.89	131.57	0.52%		WTI유	73.20	72.81	0.54%
	위안화	6.8763	6.8820	0.08%	원자재	구리	411.2	410.5	0.18%
	원화	1,298.8	1,301.5	0.21%		금	1,973.5	1,956.7	0.86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위해 금리인상 필요

- 볼라드 총재는 최근 은행권 불안 등으로 금융시장 압력이 높아졌지만, 이는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.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
- 시장에서도 최근 불거졌던 은행권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통화정책 등으로 이동. 연준의 연방기금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2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(4.08%, +8bp). 반면 10년물 금리의 인상 폭(3.57%, +4bp)은 이와 비교하여 다소 작은 편
- 이날 발표된 주요 경기지표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.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는 104.2를 기록하여 전월(103.4) 및 예상치(101.0) 대비 높은 수준. 은행권 불안에도 소비심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
- 1월 S&P/케이스-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3.8% 올라 작년 12월(5.8%)에 비해 상승세 둔화.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진한 주택공급과 최근의 모기지금리 하락 등을 고려 시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
- 한편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연준의 마이클 바 은행감독 부의장은 일부 지역은행에 대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. 공화당 의원들은 SVB 사태 관련하여 연준의 감독 부실을 지적한 반면, 바 부의장은 SVB 경영진의 투자판단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블랙록,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낮은 편. 유명 투자가 군들락은 금리인하 예상

- 블랙록의 스트래티지스트들은 투자자들이 연내 금리인하를 기대하지만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제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. 심각한 신용긴축이 발생할 경우에만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분석
- 반면 DoubleLine Capital의 유명 투자가 군들락은 향후 수개월 이내에 미국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며, 이에 연준은 급격한 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. 경제 역풍이 심화되고 있어 연내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■ 블룸버그 설문조사, 금리인상과 은행권 불안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증가

-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12개월 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65%로 전월(60%) 대비 상승. 응답자들은 금리인상 뿐 아니라 은행권 불안으로 인한 신용긴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. 은행권 불안으로 인한 여파가 아직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(ING의 James Knightley)

■ ECB 은행감독위원장, 감독 당국은 은행 혼란 이후 CDS 시장 주시

- 엔리아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은행의 영업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은 여타 은행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언급. 특히 CDS 시장의 경우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기 쉬운데,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보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연

■ 영란은행 총재, 최근의 금융혼란은 경제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

- 베일리 총재는 최근 금융혼란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데, 이는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 피력. 다만 신용여건이 긴축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으나 아직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

■ 중국 총리, 외국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경제 참여 요청

- 리창 총리는 보다 폭넓은 경제 개방을 통해 외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. 중국 경제는 글로벌 시스템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, 개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언

■ 일본은행 총재,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시간 소요.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

- 구로다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준까지 낮추는데 시간이 요구되기에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언급. 한편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(CBDC)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화가 공존하는 것은 미래에 중앙은행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첨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2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월 잠정주택판매, 독일 4월 GfK 소비자신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글로벌 은행권 불안, 안도하기는 이른 시점 - Reuters

(Don't hold your breath - banking crises last years)

- 미국과 스위스 당국이 은행권 충격에 대해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고 포괄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불안의 불길을 잡은 상태. 그러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신뢰 상실은 정책 대응이 아무리 신속하고 대담해도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
-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, 미국에서 '80년대 중반에 발생한 S&L(저축대부조합) 위기는 '90년대 중반까지, 스웨덴에서 '90년에 발생한 위기는 '94년까지 지속. 일본의 경우 최근 도시지역 토지가격은 '91년 최고치보다 65% 낮고, 주가는 정점을 기록한 '89년에 비해 30% 낮은 상태

■ 미국 정부, SVB 파산을 교훈삼아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 - 블룸버그

(Biden Has to Learn the Same Lesson as SVB)

- SVB 사태는 저금리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경영진이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면서 발생. 이는 비단 SVB 경영진 뿐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도 주의해야 할 사안.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6.9조달러 규모의 예산은 금리상승 여건에서도 저금리 시대와 동일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
- 고금리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 확대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. 무한한 공짜점심(free lunch) 제공은 불가능. 최근 프랑스의 연금 관련 대규모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지출 축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, 정부는 저금리라는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할 필요

■ 중국 지방 도시들, 막대한 부채에 직면 - The New York Times

(China's Cities Are Buried in Debt, but They Keep Shoveling It On)

- '15년 허난성 상추시의 시내 버스회사는 재정난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발표.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이미 비대해진 가운데 정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상추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도시가 다수
- 지방정부 재정난은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악화.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, 자가격리, 봉쇄조치 비용을 부담했으며,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조세 수입도 감소.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도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위축

■ 미국 투자자, 향후 금리인상 중단 시 주가 하락에 직면할 소지 - 블룸버그

(History Says to Buy the Fed Pause. Should You?)

- 과거 금리인상 중단은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. '06년의 경우 금리인상 중단 후 주가는 약 27개월간 상승세 유지. 최근 연준은 소폭 금리인상과 함께 단기간 내 금리인상 중단 가능하다는 신호를 발신. 이에 투자자들은 은행권 불안에도 주식 보유 고려가 가능.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금융여건은 주의해야 할 요소
- 과거 금리인상 중단은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며 주가수익률(PER)의 상승으로 연결. 그러나 지금은 연준이 고물가 통제를 위해 금리인상 중단 이후에도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. 또한 S&P500 기업의 향후 실적은 통화긴축 등으로 시장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관측

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, 연준의 관리 소홀 등에 초점 - The New York Times

(Silicon Valley Bank's Risks Went Deep. Congress Wants to Know Why)

-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는 연준이 위험한 은행 경영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둘 전망. 연준이 은행 감독 관련 광범위한 결함을 보였다면,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
-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적시에 개입하지 않고, 시장 불확실성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감독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.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은행 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제시
- 또한 연준 내 책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도 관심. 지역 연은 총재는 은행 감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, 일부에서는 은행권 규제완화를 유도한 전 은행감독 부의장인 켈스 이사 등에 비난을 제기

■ 미국의 금리인상, 향후 미국 기업의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할 우려 - WSJ

(Higher Rates Are Coming for U.S. Companie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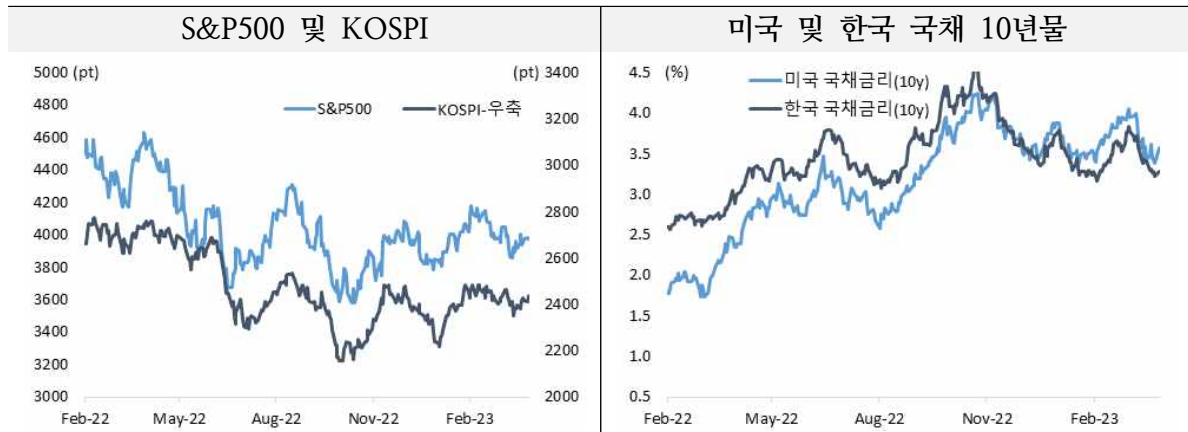
■ 연준의 목표물가제, 금융안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- Financial Times

(Inflation targets have left central banks in a bind)

■ 최근 미국 내 신용 스프레드 확대,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시사 - Financial Times

(Junk bond market: securities market may replace bank lending, uneasily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